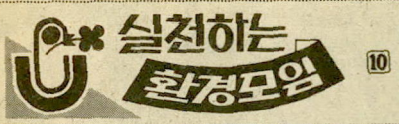


91.7.5



푸른평화공동체

“하늘을 푸르게, 물을 맑게, 땅을 숨쉬게.”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63 푸른평화공동체 사무실에 드나드는 30여명의 주부회원들은 지난 10여명의 수돗물 폐놀오염사태를 계기로 이 구호가 시민 사이에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자 요즘 부쩍 동네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은 ‘솔잎’, ‘지’ 등 예쁜 이름붙인 15개 모임별로 한 번 한 관련 주제토론회를 갖고, 들끼리 폐유를 이용한 무공해비누를 만들어 쓰거나 비누제조법적인 홍보유인물을 들고 한달 한차례 정도 전 회원이 시장·아파트단지 등을 돌기도 한다. 경북 안동지방 농민들이 유·농·수·공·산·생·활·소·비·로 생산하는 저공해 농·수·공·산·생·활·소·비를 직거래로 들여와 함께 나누는 ‘당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 먹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모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 월배성당 교리교사와 청자 10여명이 정홍규(38) 주

임신부를 따라 공해추방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부터이다.

정 신부는 이들과 함께 ‘합성세제 안쓰기’ 등의 홍보활동을 떠나가다가 그해 10월께 30~40



건강한 먹거리 먹기운동 앞장

유기농산물 직거래...일반주부까지 참여
환경토론회 · 무공해비누만들기 등 홍보

대 주부신자 70여명을 대상으로 10개의 공부모임을 만들었다.

“가사와 자녀교육 그리고 남편과 성당에만 묶여 있는 주부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각성을 통해 그들의 잠재적 활동력을 맘껏 발휘할 때 남성 위주의 세계관이 가져온 환경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정 신부의 지도로 ‘농약공해’, ‘수입농산물’,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해오던 주부들은 연말부터 통닭집 등에서 버리는 폐식용유를 이용해 ‘무공해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으며 그 제조법 홍보에 나섰다.

정 신부는 올해 4월 이 지역에 신설된 상인성당의 주임신부로 옮기면서 안동 생명의 공동체·진도 새생명 공동체·안양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저공해 농·수·공·산·생·활·소·비를 직거래하는 길을 텃으며 신자가 아닌 일반주부들까지 참여해 덩치가 커진 모임을 위해 성당 부근에 16평 남짓의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회원 이정실(38·송현주공아파

트 304동 1004호)씨는 “삼푸 없이 머리감고 벌레가 있는 배추를 먹으려니 처음엔 무척 애를 먹었다”며 “이제는 남편과 세아이기도 푸른평화운동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 모임 간사 조로사리아(27·여)씨는 “회원들은 이제 선진자본국들이 공해수출·확산의 주범임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는 다국적기업이나 공해유발업체에 맞서 두눈 똑바로 뜨고 샅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신부는 모임의 과제로 △종교

푸른평화공동체의 회원 자녀들이 지난 5월12일 낙동강에서 ‘환경생명학교’를 열어 물의 오염도를 직접 채보는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